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승인', 두 달째 감감 무소식

566억 묶인 고팍스 투자자 속 타들어간다

고팍스 변경 신고서 3월3일 접수 당국, 서류보완 이유로 수리 미뤄

바이낸스 "명분없는 지연은 위법 인수 마무리되면 원금·이자 지급"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에 고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보다는 승인 후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바이낸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두 달 넘게 기다리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2월 14일 바이낸스의 레온 심 풍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 이사로 올렸고, 바이낸스 한국사업 담당 스티브 영 김, 산업회복기금(IRI) 자유자어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

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본점이전, 정관변경 등 사업자 등록상 변동 ▲대표자 및 임원 변동 ▲업무 방법 변동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변동 등 사유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내 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다만 고팍스는 변경 신고서를 지난 3월 3일 접수했지만 45일이 지난 현재도 신고서 수리증은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VASP 등기입원 변경과 관련된 신고를 통상 일주일 내 처리해 왔다.

실제 외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

토닷컴은 지난해(8월8일)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최고재무책임자인 라파엘드마르코이멜로가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변경수리까지 완료된 사례가 있다.

행정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면서 고팍스 역시 빠른 수리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FIU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는 사후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기 임원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즉시 수리하게 되어 있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 자 ▲등기임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불수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고팍스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수리가 돼야 한다

는 지적이다.

결국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피해는 고팍스 투자자들이 짚어지고 있다.

고팍스는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로 6개월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팍스에 묶여 있는 이용자 자금은 566억원이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자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566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신고수리가 완료돼야 한다.

심재훈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인수가 마무리되면 고팍스 이용자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세금을 이용해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맞춰서 정당하게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명분없는 수리지연은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하나은행 하노이지점의 현지 직원들이 '글로벌 CS 데이'를 진행하며 손님이 행복한 금융회사를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전 세계 글로벌 영업장에 손님 중심 기업문화 전파

하나금융그룹은 전 세계 글로벌 진출 지역에 10개 언어로 제작된 손님행복헌장을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해외 진출 국가에 10개 언어로 제작된 '손님행복헌장'을 배포하고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손님중심 ▲손님만족 ▲손님행복이란 '손님 가치' 중심의 기업문화를 전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손님행복헌장은 하나금융이 제정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CS(고객만족) 표준으로, 손님 행복을 위한 실천 과제들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준수하고 손님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 해외 각 법인과 지점은 '글로벌 CS데이'를 일제히 진행하고 손님이 행복한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나금융은 매년 마지막달 셋째주 수요일을 글로벌 CS 데이로 정해 손님 감동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을 함께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새 회계제도 유리 '보장성 여행자 보험' 출시 잇따라

중소형 보험사 중심 개발 속도 여행객 급증에 수요 지속 증가 소비자 요구 사항 반영은 미흡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행자 보험 시장 공략이 활발하다. 엔데믹 이후 국내외로 떠나는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여행자 보험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보험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4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신계약 건수 기준 ▲1분기 5만5000건 ▲2분기 16만3000건(196.3% ↑) ▲3분기 22만2000건(36.1% ↑) ▲4분기 33만6000건(51.3%) 순이다.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증가배경으로는 지난해 5월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한동안 여행자보험을

찾는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행자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4분기 가입 건수 또한 2019년 동기(58만 건) 대비 57%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와 2019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격차가 좁혀진 수치다.

여행자보험에 대한 가입자들의 요구 사항도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해외의료비 보장에 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어 의료 응급상황, 검역 비용 등에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에 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기존의 귀중품 등 물건과 관련한 수요는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행자 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점 기회라는

판단이다. 보장성 보험인 만큼 새 회계제도(IFRS17)에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 분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펫보험 상품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행자보험 또한 보장성보험 중에서는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올해 등장한 여행자 보험 상품이 소비자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실물 보상, 폭력 피해 보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하나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 두 곳의 중소형사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여행자보험을 신규 출시했다.

하나손해보험은 물리폭력, 상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어 에이스손해보험의 경우 ▲개인 소지품 도난 및 파손 ▲수화물 지연

에 따른 비용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을 담보한다. 조사결과 지난해 항공·수하물 지연 비용에 관한 수요는 2%에 그쳤다.

물론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여행자 보험 담보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상 보험 상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 3~6개월이 걸린다. 가입자들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기에는 인력 및 개발시간 등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아울러 여행자 보험이 IFRS17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 보장성 보험에 그치는 만큼 장기 보장성 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요구 사항 반영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예경탁 은행장 "고객중심 상생금융 실천"

BNK경남銀 '창립 53주년 기념식'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지난 1970년 자본금 3억원으로 출발한 경남은행이 총자산 60조원 규모의 지역 대표 은행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고객과 지역 사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 행장은 지난 22일 열린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고객중심의 따뜻한 상생금융을 실천해 고객과 지역 사회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ESG경영과 일자리창출 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확실한 금융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남은행을 지역 경제 생태계의 큰 힘이 되는 은행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는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과 BNK경남은행 예경탁 은행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본부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본점 앞 광장에서는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대형 벽시계 제작



지난 22일 경남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예경탁 은행장(왼쪽 첫번째)과 직원들이 '바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다짐의 시간'을 갖고 있다. /BNK경남은행

식'이 열렸다.

빈대인 회장은 축사를 통해 BNK경남은행의 53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힘을 모아 용기 있게 도전하고 슬기롭게 추진해 위대한 BNK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성적 우수 학생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구남영 기자

강신숙 Sh수협은행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은행 영업의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Sh수협은행은 강신숙 은행장이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에서 특강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행장은 "규모의 경제가 통했던 과거에는 많은 영업점을 가진 대형은행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MZ세대 중심 금융소비자들은 더 이상 은행 영업점 방문을 원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내 손안의 은행'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강 행장은 디지털 전환은 고객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의 고객관리는 영업점과 은행원 개개인의 역량이 좌우했지만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금융회사 차원의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 행장이 특강을 진행한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1975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전문경영인 양성 과정이다. /김정산 기자